

# 대전지역 유통가, 짐통더위 날릴 여름 행사 풍성

## 샌들-스니커즈 특가전·팝업스토어 오픈 할인 행사

대전지역 유통업체가 짐통더위를 잊게할 다양한 여름철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캘러리아타임월드는 다양한 행사를 주말 동안 전개한다고 8일 밝혔다. 글로벌 언더웨어 브랜드 '와코루'가 일년에 단 한번 진행되는 고객 초대전을 펼친다. 10층 행사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여성 속옷, 파자마 등을 최대 60%까지 할인 판매한다. 6층의 트레이디셔널 감성 캐주얼 브랜드 올센

과 7층의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 와티 이즌에서는 S/S 클리어런스 특가전을 전개하고 6층의 남성 셔츠 브랜드 닥스 셔츠와 듀폰 셔츠에서는 셔츠 상품 2개 구매 시 일정금액을 추가 할인한다. 4층의 제화 브랜드 텐디와 바바라에서는 여성·남성 샌들을 균일가에 판매하는 샌들 특가전을 펼치고 컴템포러리 슈즈 브랜드 슈콤마보나는 신상품 구매 시 금액에 따라 단계별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13일 덴마크 감성 캠핑 브랜드 노르디스크

의 아이덴티티를 바탕으로 한 프리미엄 아웃도어&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노르디스크를 7층에 새롭게 선보인다. 롯데백화점 대전점도 풍성한 혜택을 선보인다. 해외패션 편집샵 스말트는 1년에 단 두번만 진행되는 스말트 데이 행사를 1층 본매장에서 진행한다. 최대 30%까지 혜택의 폭을 넓힌 구찌, 버버리, 페라가모, 지방시 등 다양한 해외패션 브랜드의 가방, 벨트, 지갑 등 상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롯데의 해외패션 편집 매장

인 롯데탑에서도 1년에 단 두번만 진행되는 '탑스 데이' 행사를 층 본매장에서 연다. 구찌, 페라가모, 버버리, 마르니, 메종마르젤라 등 가방, 지갑 의류까지 다양한 상품을 특별 우대가로 제한한다. 해외 유명 브랜드 스니커즈 편집샵인 스니커바에서 1년에 단 두번만 진행되는 스니커바 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골든구스, 구찌, 알렉산더 맥퀸 등 해외 유명 스니커즈를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대전신세계 Art&Science는 다양한 신규 브랜드 및 팝업스토어 오픈과 함께 여름 클리어런스를 이어간다.

대전신세계는 듀베티카를 새롭게 선보였다. 듀베티카는 프리미엄 기능성 소재 새로운 액티브 스타일링을 제안하는 브랜드로 오픈을 기념해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브랜드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아이들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유니크하고 타임리스한 디자인을 전개하는 스페인 브랜드 'TA.O'는 14일 4층에 문을 연다. 오픈 프로모션으로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 예코백을 증정할 예정이다. 키친&테이블웨어 브랜드 팝업스토어는 7층에서 전개한다. 로제탈, 즈위켈글라스, 폴란드 도자기 아티스티나, 스킵숏 등 다양한 브랜드가 참여,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은 토박스 매장 이동 오픈 프로모션을 열고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 예코백 증정 행사를 한다. 또한 모든 세대를 사로잡은 마라의 매력에 한국의 맛으로 재해석한 왕푸징마라탕은 13일 대전점에서 문을 연다. 뉴발란스키즈&로라앤제인 클리어런스 최대 60% 할인은 15일까지 1층 이벤트플라자에서 진행된다. 이와 함께 16일 에메이징크리 매장이 2층 매장에 오픈한다. 신규 오픈 프로모션으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골프 양말과 파티커퍼 볼라커를 증정한다. 한은혜 기자 eunhye7077@dailycc.net



**충남세종농협, 쌀 소비 촉진행사** 충남세종농협은 쌀 재고량 증가와 쌀값 하락에 따라 내포 직거래 목요장에서 충남쌀 나눔행사와 함께 아침밥 먹기 운동 캠페인을 8일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 상동 충남세종농협 RPC 운영협의회장과 충남세종지역 농협RPC대표, 직거래장터 대표 등이 참석해 500g 충남 쌀 500개를 내방고객에게 나눠주고 아침밥 먹기 등 쌀 소비촉진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직거래장터를 찾은 시민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며 담례품으로 쌀을 선택해 달라고 홍보했다. (사진=충남세종농협 제공)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참** 진영문 한국산림기술인회 회장은 8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전범권 이사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됐으며 다음 주자로 숲과나무 화연구회 임주은 회장을 지목했다. 진 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 직원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예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의명 기자 young0425@dailycc.net

## 코레일, 추석 승차권 19일부터 예매 시작

교통약자 편의↑... 할당 좌석 비율 늘리고 전화 예매 도입

코레일이 19일부터 나흘간 추석 열차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 이번 예매는 온라인(PC, 모바일)과 전화(고객센터)로 진행되며, 대상 열차는 내달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운행하는 KTX·ITX-새마을·무궁화호 열차 등이다. 먼저 코레일은 교통약자의 명절 승차권 예매를 배려하기 위해 19일과 20일 이틀간 별도 예매를 진행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교통지원대상) 등을 대상으로 한다. 코레일은 교통약자의 예매 편의를 위해 온라인 예매 접속 시간을 3분에서 5분으로 연장하고, 시각·지체·뇌병변장애인 회원은 30분으로 연장했다. 장애인·국가유공자(교통지원대상)는 반드시 사전등록이 필요하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전화접수(1544-8545)로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이후 역을 방문, 신분증을 확인하고 승차권을 발급해야 한다. 코레일은 교통약자의 예매 편의를 높이고자 할당 좌석 비율을 두 배 늘리고 전화 예매를 도입했다. 또 교통약

자 전용 명절 승차권 예매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동영상과 안내 포스터를 배포하고 있다. 이후 21일과 22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홈페이지나 코레일톡 등 온라인으로 추석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코레일톡에서 '명절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웹브라우저에서 주소를 직접 입력하면 된다. 코레일은 예매를 돕기 위해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명절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를 사전 운영한다. 철도 회원번호, 비밀번호, 열차 시간표를 미리 확인하고, 출·도착역 입력, 열차 선택 등 예약 방법을 실제와 동일한 환경에서 체험할 수 있다. 전 국민 예매 기간(8.21~22)에 예약한 승차권은 22일 오후 3시부터 25일까지, 교통약자 예매(8.19~20)는 28일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미결제 승차권은 자동 취소되고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잔여석은 22일 오후 3시부터 홈페이지·코레일톡·역 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다. 유수경 기자 sjyoo0327@dailycc.net

## 계룡건설, 건설현장 '온열질환 Zero 캠페인'

매일 아침 근로자 건강 상태 체크·냉방 시설 휴게실터 설치 계룡건설이 전 현장을 대상으로 '혹서기 온열질환 Zero 캠페인'을 전개한다. 8일 계룡건설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혹서기 동안 근로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예방 조치를 통해 온열질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계룡건설은 매일 아침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협력사 관계자와 안전 상담을 통해 각 개인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또한 현장 내 안전관리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온도와 습도를 모니터링하며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이어 적극적 예방 조치를 위해 현장별 점검과 계룡건설 CSO 및 본사 안전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협력사 관계자와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한 간담회도 실시했다. 한은혜 기자 eunhye7077@dailycc.net

이와 함께 혹서기 동안 근로자들의 체온 조절을 돕기 위해 현장별로 아이스조끼와 쿨도시, 쿨스카프 등을 지급해 체감 온도를 낮추고 아이스크림과 이온음료를 지원했다. 현장 곳곳에는 냉장고와 냉수기 등 냉방 시설이 갖춰진 휴게실터를 설치해 근로자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박상혁 CSO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혹서기 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은혜 기자 eunhye7077@dailycc.net

##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참

진영문 한국산림기술인회 회장은 8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전범권 이사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됐으며 다음 주자로 숲과나무 화연구회 임주은 회장을 지목했다. 진 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 직원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예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의명 기자 young0425@dailycc.net

## 보호아동 취업 준비 돕는다

### 대전노동청 '드림톡톡' 운영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충청권 보호아동들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취업관련 진로 탐색 프로그램인 '드림톡톡'을 운영한다. 8일 대전노동청에 따르면 드림톡톡은 대전노동청이 진로·적성 탐색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아동을 먼저 찾아가 지원하기 위해 충청권 관내 관련기관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전국 고용센터 최초로 개발한 '취업준비 이 전단계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다. 1부에서는 MBTI 검사를 통해 나에게 대한 이해와 성격특성에 맞는 직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2부에서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고 진로를 나누는 활동을 함께 했다. 한은혜 기자 eunhye7077@dailycc.net



**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교통안전 체험 교육**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는 지난 7일 지역아동센터 대전시 지원단과 함께 소외계층 아동 및 봉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했다. 본부는 지역 내 소외계층인 아동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전시관 견학하고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한 비트박스 홍보 챌린지, 한국도로공사 수목원 견학 등을 시행했다. (사진=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제공)

##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대상채무 확대

소진공, 신용점수 919점 이하까지 포함... 채무부담 경감 담 경감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과 대환대상 채무를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919점(2등급) 이하 소상공인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또한 사업자대출 외에도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대출일 포함 3개 반기 내 사업용도로 사용한 대출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000만원까지 대환이 가능하다. 한은혜 기자 eunhye7077@dailycc.net

채무실행 시점은 기존에는 2023년 8월 31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까지 지원했으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일인 2024년 7월 3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로 약 1년 확대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통합콜센터,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은혜 기자 eunhye7077@dailycc.net

## KT&G, 2분기 영업이익 3215억... 전년비 30.6% ↑

KT&G가 8일 기업설명회를 통해 2024년 2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다. KT&G의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4238억원, 영업이익은 32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6%, 30.6% 증가했다. 2분기 호실적은 해외관련 중심의 담배사업부문이 견인했다. 특히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3% 증가한 3591억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국내 NGP 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0.8%, 42.8% 증가했다. 스틱 수량도 7.7% 증

가해 트리플 성장을 달성했다.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사업부문의 성장세도 확대됐다. 핵심 사업국가인 중국 시장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5.4% 성장한 619억원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KT&G는 지난해 발표한 중장기 주주환원 계획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공개했다. 이날 이사회는 중간배당과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결정했다. 이사회가 결의한 주당 1200원의 중간배당을 포함한 2024 회계연도의 총 주당배당금은 전년 대비 증가하며,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혜 기자 eunhye7077@dailycc.net

## 한국타이어, 2분기 영업이익 4200억... 전년비 69.2% ↑

한국타이어가 2분기 호실적을 거뒀다. 8일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4200억원, 매출액 2조3178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2.4%, 영업이익은 69.2% 각각 증가했다. 영업이익의 개선에는 18인치 이상 고인치 타이어 판매 호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고인치 타이어 판매 비중은 46.3%로 전년 동기 대비 판매 비중이 2.8%p 상승했다. 주요 지역별 고인치 승용차용 타이어 판매 비중은 중국이 63%로 가장 높

았으며 한국 55.3%, 북미 54.6%, 유럽 37.8% 순으로 기록됐다. 글로벌 전기차 전용 타이어 시장을 선도하는 성과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2022년 세계 최초 풀라인업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 출시 이후 포트폴리오를 지속 다변화해 16인치부터 22인치까지 236개 규격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마케팅 활동도 국내외에서 강화하고 있다. 한은혜 기자 eunhye7077@dailycc.net

## 데이터기반행정 이해·분석 우수사례 공유

### 국가철도공단, 데이터분석 전문가 박영식 교수 초청 특강

국가철도공단은 직원들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높이고자 지난 7일 대전 본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행정 이해와 분석 우수사례 공유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데이터분석 전문가인 박영식 한국데이터사이언티스협회 교수를 초청해 2시간 가량 데이터기반 행정의 이해, 데이터를 읽고 해석하는 방법,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의

이해, 분석 우수 사례를 강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성혜 이사장은 "철도건설 분야에 선도적으로 데이터 행정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직원들의 데이터 역량강화를 위한 기획, 분석수행, 활용 등 관련 교육을 지속해 신뢰성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수경 기자 sjyoo0327@dailycc.net